

나무는 심지 않고 열매 따려는가?

해마다 5월이면 불교계 이곳저곳에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어린이 포교'.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올 5월 전국 529곳 회원 및 연수 참여사찰을 전화 설문한 '전국어린이법회 현황조사'

어린이 포교 현실과 방향

결과에 따르면, 정기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363곳(68.6%), 참가자는 11,9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만2천여 사찰 중, 대불어 회원 사찰이 아닌 경우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포교에 나서고 있는 사찰은 11%인 2,5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포교 기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셈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돈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서울 근교 모 사찰은 최근 새 주지 스님이 부임하면서부터 150여 명 넘던 어린이법회가 뿌리 채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인은 어린이법회 지원금 중단과 어린이들이 절에 와서 시끄럽게 군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박 모씨(27)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지적한다.

"새 주지 스님이 오신 이후로 대응전 불상에 새롭게 금 옷을 입히는 불사를 한창 벌이고 있어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수익 없는 어린이법회에 관심을 쏟아 부울 수 있겠어요?"

중단의 어린이 포교 예산 규모는 더 심각하다. 2003년도 조계종 포교원 20억여 원 예산 중, 어린이포교 예산은 불과 5천2백여만 원(0.26%)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불어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의 등·하계 연수비, 좋은 벗 풍경소리의 음반 제작 등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반면, '돈' 부담도 덜고, '아동복지사업'도 펼칠 수 있는 어린이 집 운영은 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2003년 5월 집계한 불교 사회복지시설 총 468곳 가운데, 어린이 집 등의 아동 시설은 208곳(44.5%)에 달하고 있다.

전남 사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집



◇ 지난해 열린 '부다피아어린이캠프' 현장. 참가 어린이들이 참선수행을 경험하고 있다.

어린이법회 운영사찰 11% 불과

"사찰운영 도움 안된다" 예산축소·프로그램 개발도 저조

일부 중단·대불어·불레협 활동 모범적

오 모 관장(43)은 이와 관련, "최소한 어린이 집 형태의 어린이 포교는 정부로부터 교사 월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산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 '가르칠 사람'도 '프로그램'도 없다 = (사)불교도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대불어 제32차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411명의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뒀던 과제로 프로그램 개발 328명(40%)과 지도교사 양성 173명(2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사 양성 시스템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적인 사례가 지도교사의 재직기간이다. 지도교사 10명 중 5명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열악한 보수로 인해 장기 근속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처우개선 없는 지도교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어린이법회의 교육 및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 지도교사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과내용을 참조하지 않거나, 교사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사찰 지도교사 박 모(26) 씨는 "지도할 교사의 양성과 함께 가르칠 방법도 중요하다"며 "교수방법이 없어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똑같다"고 말한다.

▲ 나아가야 할 방향 = 중단 차원의 지도교사 양성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는 진각종이 대표적이다. 진각종은 지난해 5월부터 자성학교(어린이법회) 교사 전원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110곳 심인당(사찰) 중 85곳(77%)에서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담 직업교사 수만 20명(24%)에 달한다. 진각종은 매년 포교관련 예산의 35%(2억 6천여만 원)를

책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천태종의 경우, 10년 전부터 '천태어린이·학생회 지도법사회'를 구성해 매달 전국 63곳에 비구니 30여 명이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눈높이 프로그램 개발' 모범사례는 단연 대불어와 불레협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 전용 소식지 발간은 물론, 인터넷 시대 흐름에 맞춰 사이버 포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대불어는 마스코트와 신불을 제작, 새싹불자들에게 한층 가까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찰과 스님들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열매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 도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 포교를 '불교인재 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은 지도교사의 '교육-파견-재교육-보상' 등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과 사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강원에서 어린이포교 교육 실시 △어린이법회의 학원 기능 수행 △어린이법회의 의무화, 주지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미성
진각복지재단
복지과장

내일의 복지문제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인타까운 사연이 '진각복지 119 사업'에 접수되었다. 강원도 신북에 사는 김모 대상자는 47세의 지체장애4급 장애인으로 배우자 정신지체 2급, 아들 역시 지체장애인이며, 고교 1년 생인 딸만이 정상인인 장애인 세대의 가장이다. 국가보조금과 월 50만원의 가장이다. 국가보조금과 월 50만원의 김모 대상자는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 다리 위에서 떨어져 척추탈구로 병원에 누워 긴급히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다.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영구적 사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다.

복지서비스가 당연히 그러하여야겠지만 119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서비스 전달이다. 해당 기관과 병원 등에서 필수적인 서류가 갖춰지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상황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대상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 마음이 조급해진다. 서둘러 현재의 사회복지사, 공무원, 병원관계자 등과 상담, 협의 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얼마 후 의뢰기관에서 결과보고가 온다.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본인의 의지가 강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어서 의료진도 힘을 얻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란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목적이 확실하고 그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김모 대상자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도우며 만족했

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특정인에게만 해당된 것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복지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산업복지, 학교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그 대상과 분야가 사회 전반에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회가 현대화, 핵가족화 되면서 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이로 인하여 복지의 대상자도 주 소외계층이었던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일반 시민들 모두에 해당되고 있다. 또 그 욕구도 다양하고 복잡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상의 공기와 물, 태양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일부이다. 연일 뉴스에 보고 되듯이, 어린이 안전교통통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아동, 노인학대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주위에 해결해야 할 복지중심적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다.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각 정당마다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공약사항과 전문기를 앞세웠다. 그러나, 복지는 여전히 차선이고 뒷전 의뢰진도 힘을 얻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란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목적이 확실하고 그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김모 대상자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도우며 만족했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
성 광 수氏

“
수신통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통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통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5300

직인 무효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금수사 공용인감

(직인, 주지인)을 2003년 5월 11일부로

무효 공고함

불기 2547년 5월 1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